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 정다운 / 비아 출판

얼마 전 한 인기 철학자의 강연을 듣기 위해 대학로에 있는 강연장에 갔을 때 크게 놀란 적이 있다. 사람들이 이미 2시간 전부터 와서 자리를 꽉 채우고 기다리고 있어서 더 이상 빈자리가 없는 것이다. 교회 예배 시간도 종종 지각하는 나로서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50년 전 즈음엔 사람들이 목사 주변에 이렇게 모였을텐데, 시대가 변했구나...더 이상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걸까?...인문학과 과학과 심리학이 오히려 더 현대인들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위로를 가져다주는 것일까?...성경이 말하는 죄와 구원의 이야기가 이 시대에 더 이상 의미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걸까?...”

### 잃어버리다

교회 안에 청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얼핏 보면 그저 과거 화려했던 교회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노인들만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신앙의 언어를 피한다. 화려한 무대와 음악과 세련된 설교자의 언변과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대신하려 한다. 그런 방식이 순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했다.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리면, 그 언어가 재현하는 실재도 함께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교회는 ‘죄’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진부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위로를 찾아 나서게 만들었다. 인문학 강의 열풍 현상과 심리학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현대인들에게 많이 읽히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풍조를 잘 보여준다.

### 다시 찾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바라 브라운의 책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는 ‘죄’, ‘회개’, ‘구원’이라는 단어가 결코 대체 불가능함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개인의 실존적인 불안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용어나 법률용어나 인문학 용어로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실존적인 불안의 상태를 “나 지금 우울해”라는 말로 대신 표현하려 한다. 하지만 저자는 그런 아픔을 ‘죄’라고 부르기를 결단하도록 촉구한다. 그 순간 현실을 지각하는 방식에 급진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저자는 말한다.

### 책 속의 한 줄

우리 내면에는 텅 빈 곳(공허)이 있으며 이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

우리가 이 텅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멈추고 비어있음을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p.227)